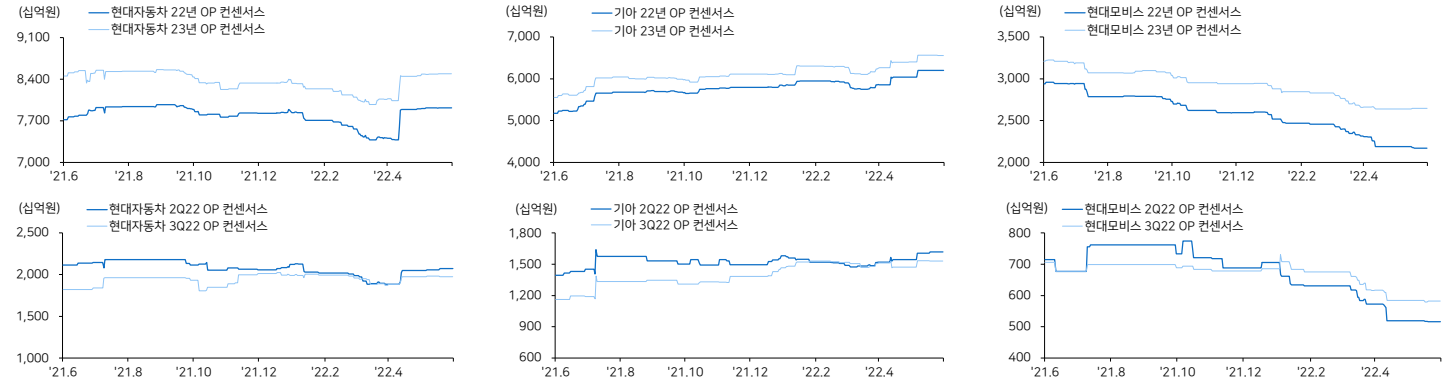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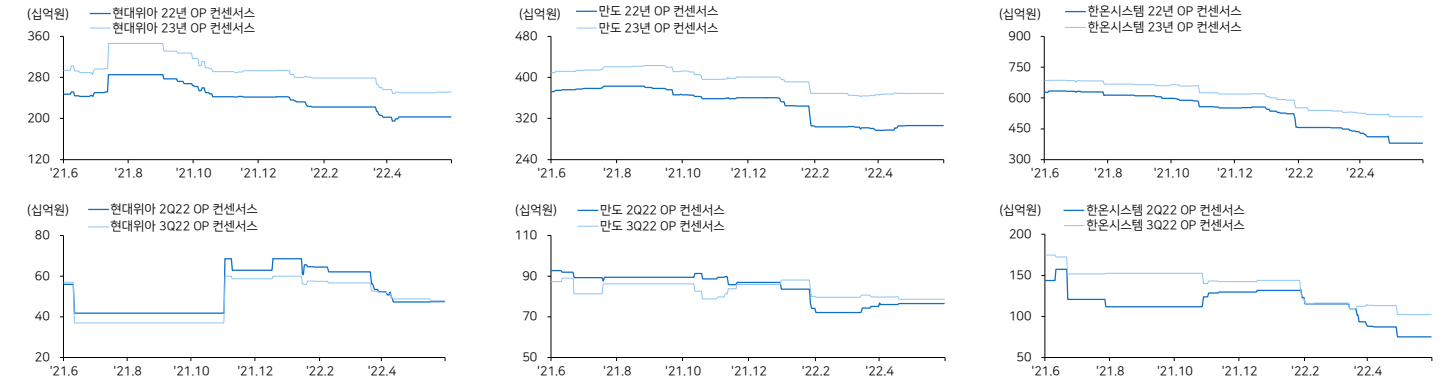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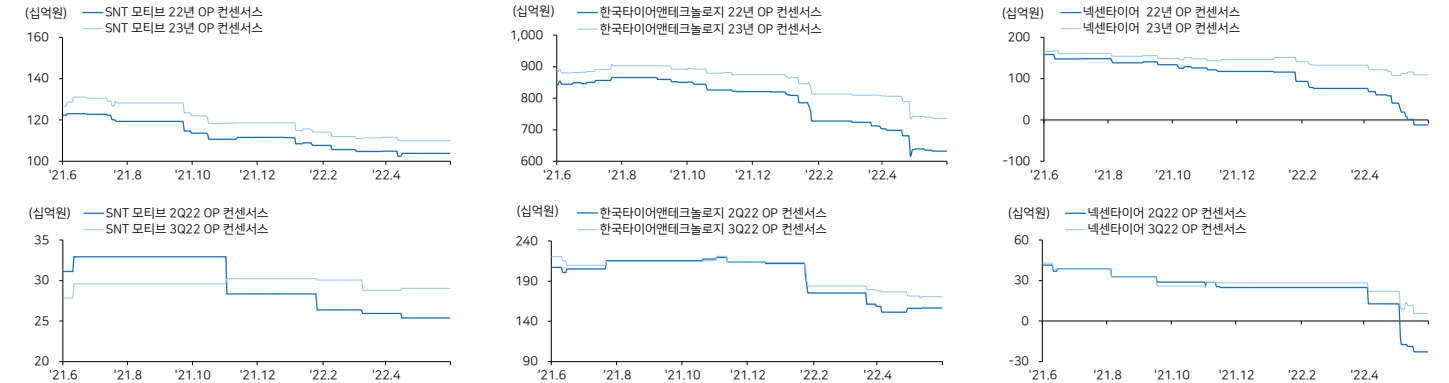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5월 유럽판매 9.8% 증가... 아이오닉5·EV6 누적 5만대 (조선비즈)

5월 유럽 전체 시장 판매량은 948,149대로 작년 동기 대비 12.5% 감소, 현대차·기아는 올해 5월 유럽에서 총 96,556대를 판매, 작년 5월 대비 판매량이 9.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아이오닉5와 EV6 누적판매는 53,651대를 기록함.
<https://bit.ly/3xqNWxm>

[ESF 2022]*사업용 겨냥...기아, PBV로 기후변화 대응 (이데일리)

강주경 기아 신사업기획실장은 2030년 PBV 시장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B2B 시장에 주목, 첫번째는 결국 로보택시를 귀결될 것이고 이후머스를 타깃 시장으로 꼽음. 기아는 지난 5월 출시한 니로플러스를 전용차에 이어 PBV차량 라인업을 다양화 중.
<https://bit.ly/3Hy0Nm1>

VW U.S. chief warns of industry challenges with EV battery shift (Reuters)

폭스바겐 AG의 미국 최고 경영진은 목요일 미국이 속전 속박 유지, 핵심 금속 채굴 및 공급을 포함하여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생산을 늘리는 데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어 공급망 관련문제를 공급함.
<https://reut.rs/302pMjV>

Tesla (TSLA) significantly increases its electric car prices across its lineup (electrek)

Tesla 가 한 차례 더 가격 인상을 단행함. 인상 폭은 Model 3 2,500달러, Model Y LR 3,000달러, Model Y P 2,000달러, Model X 6,000달러 등으로 알려짐. Model S와 Model X Plaid는 동일한 가격을 유지함.
<https://bit.ly/3xzBkEd>

윤 대통령 공약대로...전기차 충전요금 동결된다 (한국경제)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한국전력이 충전 사업자에게 따는 전기 도매가격은 올리되 충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
<https://bit.ly/3N00TzS>

발레오, 3세대 라이다(LIDAR) 스텔라리스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에 공급 (엔투데이)

프랑스 부품업체 발레오가 14일 3세대 라이다(LIDAR) 'SCALA 3'를 2024년부터 스텔라리스가 판매할 신모델에 공급한다고 밝혔. 해당 모델은 2세대 대비 50배 이상의 높은 해상도를 제공, 150m 앞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
<https://bit.ly/3N0IGYq>

NIO's mass-market brand has a planned annual capacity of 500,000 units, CEO says (CNEV Post)

NIO는 연간 50만대 생산능력을 위한 NeoPark 공장 2단계 계약을 체결함. 해당모델은 Tesla Model 3와 경쟁할 것이며 가격은 약 3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됨. 2024년 하반기 인도 계획 중이며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CEO가 예상함.
<https://bit.ly/39uXtM9>

Sony and Honda create joint EV company, and Sony gets top billing (electrek)

소니와 혼다가 전기차를 개발하는 합작사 'Sony Honda Mobility'를 공식적으로 설립함. 2025년 첫번째 EV와 모델링이 서비스의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발표. Honda는 완성차 제조, Sony는 SW/기술을 제공할 계획.
<https://bit.ly/30ozXz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